7강 벤야민과 보들레르

1. 벤야민의 『아케이드 프로젝트』

1.1 미시담론에 대하여

사생활의 역사, 피터 브라운, 주명철, 새물결, (2002)

◇ 프랑스의 아날학파(Annales School)를 중심으로 거대담론은 미시담론으로 이동한다.

→ 『사생활의 역사』

◇ 미시담론을 개척한 벤야민은 맑시스트 좌파이다.

→ 프랑크푸르트학파

1.2『아케이드 프로젝트』

◇ 아케이드란 19세기의 도시계획에 들어있던 일종의 인공정원

◇ 자본주의의 역사는 만국박람회→아케이드→백화점→대중매체&인터넷으로 이동

→ 모두 상품이 집결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.

◇ 19세기 파리의 아케이드 안에는 수많은 상품과 거지 그리고 매춘부들이 모여 있었다.

1.3 발터 벤야민

◇ 벤야민에게서 '기억'이란 특별하다.

→ 그는 묻혀진 기억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했다.

◇ 『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』, 「역사철학 테제」

→ 미시담론의 시작

◇ 파리를 미시적이면서 진보적으로 바라 본 벤야민은 나치를 피해 파리를 탈출하려다 실패하자 자살하고 만다.

1.4 보들레르와 『악의 꽃』

◇ 보들레르는 가장 민감하게 파리를 살았던 시인

◇ 보들레르의 『악의 꽃』은 금서로 지정되었다.

◇ 그의 처음 시는 아케이드에 관한 것이었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◇ 인간이 일찍이 본 일도 없는,
그 무서운 경치의,
어렴풋하고 먼 이미지가,
오늘 아침에도 나를 호린다.

(…)

계단들과 아케이드들의 바벨탑,
그것은 광 없거나 광나는 금속으로
떨어지는 분수와 폭포들로 가득 찬,
하나의 끝없는 궁전이었으니;

수정의 커튼들처럼,
육중한 폭포들이,
금속의 절벽들에,
눈부시게 걸려들 있었다.

(…)

그래서 모두가, 검정색마저도,
윤나고 밝아 무지개빛 같았고;
액체는 제 영광을 수정 같은
광선 속에 아로새기고 있었다.

사사로운 불빛으로 반짝이던,
그 기적들을 밝게 비쳐줄,
딴 어떤 별도, 태양의 어떤 자취도
없었다, 심지어는 하늘의 저 끝에도!

또 그 움직이며 바뀌는 불가사의들 위엔
영원한 고요가 감돌고 있었으니
(무시무시한 새로움! 모두가 눈요기!
귀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!)「파리의 꿈」『악의 꽃』

◇ 패션을 다루기 이전에 생각해야 할 점은 시각에 대한 부분이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